진우 스님, 열암곡서 국가 평안·화합 발원

조계종, 3월 15일 국민화합 기원 108배 기도법회 봉행

진우 스님 취임 900일 기념
원력 모아 국난 극복 발원

경주 열암곡=임은호 기자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이 바로 세워지고 혼란 속에 있는 국가의 평안과 국민 화합의 염원이 담긴 108배 기도법회가 경주 남산에서 열렸다.

조계종은 3월 15일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 앞에서 '국민화합기원 열암곡 마애부처님 108배 기도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이날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 900일째를 맞아 진행된 것이라 의미를 더했다. 이날 법회에 모인 400여 사부대중은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울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마음의 평안을 이루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도록 큰 원력을 갖고 간절히 기도할 것을 다짐했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108배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무기관 소임자 스님들, 불교계 단체장 등 20여 명이 동참했다. 협소한 공간으로 108배에 동참하지 못한 대중들은 '다라니'를 독송하며 빗줄기 속에서 기도를 올렸다.

108배 후에는 선명상 실참이 이어졌다. 싱잉볼 소리에 맞춰 대중들은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흘러보내는 '쉘패스 선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평정심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무원장 취임 이후 핵심 추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 불사의 의미를 설명한 진우 스님은 "1000년을 누워계신 부처님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단순한 우리 국가 문화유산 복원을 넘어서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며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한 호국과 자비 정신을 되살리고 새로운 천년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원력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진우 스님은 열암곡 마애부처님께서 바로 일어선다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번영과 국운 융창이 다시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님은 "국민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는 1700년 불교 역사와 그 가르침이 다시금 활화산처럼 타오를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된 국민의 힘으로 세계 최강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평안과 국민 화합 염원이 담긴 108배 기도법회에서 진우 스님은 "열암곡 마애부처님이 바로 일어선다면, 나라의 번영과 국운 융창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모두가 마음의 평안을 이루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큰 원력을 세우고 간절히 기도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법회에는 불자 가수이자 배우 이승기씨도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이승기 씨는 이날 명경문화재단 이사장 주석 스님과 함께 천년을 세우다 불사기금 1억원을 진우 스님에게 전달하고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국가유산을 제대로 한다는 취지와 원장 스님의 의지에 감동을 받아 동참하게 됐다"면서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위안을 받고 우리나라 문화의 힘도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 출·재가자 두 번째 수행결사 시작

전국비구니회, 3월 17일 만불전서
'올 상반기 청정승가공동체' 입재식



여성 출·재가자가 한자리에 모여 '여성 수행자'로 함께하는 두 번째 수행결사가 시작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차를 맞이한 이번 결사는 비구니 스님과 재가자가 수행으로 하나 돼 승가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데 의미가 크다.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3월 17일 경내 만불전에서 '2025년 상반기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 입재식'을 봉행했다.〈사진〉 스님들과 여성 재가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동시에 온라인 줌으로도 90여 명이 동참하며 수행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는 지난해 3월, 4년간의 수행을 목표로 출범한 여성불자 수행 공동체다. 사찰과 대중 소임 또는 직장과 가정 등 각자의 처소에서 책임을 다하며 살면서도, 수행자의 본분을 잊지 않고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순수 수행결사다.

이번 상반기 수행결사는 6월까지 한 달에 2번(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 진행한다. 서광 스님의 지도 아래 위빠사나 명상의 이론과 실참을 익히고, 화두선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행법을 실습한다. 특히 2025년 한 해 동안 수행결사에 참여하는 이들은 보건복지부 인증 '명상심리상담사 2급 과정'을 병행할 수 있다.

이날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수행결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여성 수행자들이 마음을 모으는 것 자체가 수행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광용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은 수행에 있다. 수행자가 수행하고자 마음먹는 것은 엄지손가락 위에 흙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만큼 마음내기 어렵고 귀하다는 뜻"이라며 "우리는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수행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명약이다. 함께 수행하는 공덕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원로회 수석부회장 일법 스님은 "지난해 1년간 수행을 해보니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올해도 기대가 크다"며 "수행자의 본분을 잊지 않고, 승가공동체의 순수성을 보호하고 확대해 나가는 기간으로 삼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동참자들의 기강을 바로세우는 입승 정묵 스님(비구니회 부회장)은 △승가공동체의 일원임을 항상 명심할 것 △소욕지족의 단순 소박한 생활을 할 것 △서로 경어를 쓰며, 말과 행동을 부드럽고 자애롭게 할 것 △잠깐이라도 매일 꾸준히 정진할 것 △봉사와 배려로 붓다의 자비 정신을 실천하며 모범을 보일 것 △환경친화적인 삶을 생활화하며, 절약과 재활용을 실천할 것 등 12가지 수행 청규를 발표하며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화엄사 신임 주지에 우석 스님 선출

3월 20일 산중총회서 만장일치
우석 스님 "문도 화합에 최선"



지리산 화엄사는 3월 20일 경내 화엄원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제23대 주지 후보로 우석 스님(현 화엄사 부주지·사진)을 선출했다. 전체 구성원 180명 중 100명이 참석한 이날 산중총회에서 우석 스님은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2025년 5월 9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는 3월 17일 제416차 회의를 열고 우석 스님의 자격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결정했으며 총 180명의 산중총회 구성원을 확정했다.

당선 소감에서 우석 스님은 "1,500년 화엄종찰의 역사를 잇는 선대 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주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화엄사의 위상을 지키고, 원력과 공심을 바탕으로 화엄문도의 화합과 전법 포교 도량으로서 미래 포교의 중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석(愚石) 스님은 종삼 스님을 은사로 1992년 수계했으며, 1997년 동국대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전남대에서 박사과정(특수교육학 전공)과 중앙승가대에서 박사과정(문화재학 전공)을 수료했다. 제14·17대 중앙종회의원, 동여수노인복지관 관장, 화엄사 부주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여수 향일암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및 사성암 주지를 맡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고종, 무형문화유산 활성화 위한 간담회

무형유산 보유단체 의견 청취
보조금 등 행정 지원 약속도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종단이 보유한 무형문화유산의 활성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태고종은 3월 18일 광주 법륜사에서 '한국불교태고종 무형유산 보유단체 간담회'를 열고, 무형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를 통한 한국불교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간담회에서 "대부분 단체들이 지자체의 지원 부족을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며 "총무원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9개 단체를 대표하는 협의체 구성, 정기적 회의 개최 방안이 제안됐다. 총무원은 콘텐츠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수립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한 9개 단체 대표들은 지자체의 부족한 지원과 전승교육의 어려움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광주를 대표해 참석한 월인 스님은 "5·18 영산재 행사를 40여 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데, 태고종의 이름으로 전국 행사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현재 전수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이수자 지정과 관련한 학술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종단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태고종이 보유한 무형유산은 총 9개 지역으로, 국가무형유산인 영산재(서울)와 아랫녘 수륙재(경남 창원)를 비롯해 △영산작법(전북 전주) △범패와 작법무(인천) △제주불교의식(제주) △광주영산재(광주) △불모산영산재(경남 창원) △밀양작양산예수재(경남 밀양) △생전예수재(경기 양주) 등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통도사 자장매가 알려온 봄소식

모진 추위를 작은 꽃잎으로 밀어내며 봄을 불러오는 매화는 봄소식의 전령이다. 양산 통도사의 홍매화도 그 전령 중 하나다. 그 이름은 '자장매'. 통도사 영각(影閣) 앞 자장매가 어김없이 봄을 피워내고 있다.

양산 통도사=하성미 기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3월 3일 국립공원의 날

"아름다운 공존, 함께 그려가는 국립공원"

제5회 국립공원의 날 주간행사 운영

※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 누리집(knps.or.kr) 참조